

# 중국어 동량사 구문의 어순변이에 대한 통시적 연구

박향관\*

## 目 录

1. 서론
2. 동량보어와 목적어의 어순변이 양상
3. 동량보어와 목적어의 어순변이 요인
4. 결론

## 1. 서론

고대 중국어는 동작의 횟수를 표현하기 위해 수사+동사 형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양한시기 전후로 수사가 동사 뒤로 이동하고 동량사라는 범주가 생겨나면서 동사+수사+동량사 어순으로 변화했다.<sup>1)</sup> 이로 인해 동사 뒤에 목적어와 동량보어가 동시에 출현하는 상황이 생겨나는데 이때 목적어는 동량보어 앞이나 뒤에 올 수 있다.<sup>2)</sup>

그동안 현대 중국어에서는 동량보어와 목적어의 어순에 영향을 끼치는 요

\* 慶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 1) 육조시기에는 주로 수사+동량사가 동사 앞에 나타나지만 이런 형식은 당대이후 동사+수사+동량사 형식에 의해 대체되었다(太田辰夫:1990). 본고에서는 주로 목적어와 동량보어사이의 어순을 논하므로 동사 앞에 출현하는 수사+동량사 형식은 논외로 하나 이들 어순이 초기 동량보어의 어순 변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본문에서 다소 언급한다.
- 2) 양한시기 목적어 뒤에 출현하는 수사와 동량사를 일종의 準목적어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동량보어라는 명칭은 중국어 보어체계가 완성된 후에 쓸 수 있지만 우선 편의를 위해 동량보어로 명명한다.

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sup>3)</sup> 주로 한정성(definite), 특정성(specific), 유정성(animacy) 및 신정보(new information), 구정보(given information)와 같은 목적어의 성질과 동량사의 전용·차용 여부 등이 고려되었다. 그 결과 차용 동량사는 대부분 목적어 뒤에 출현하고 전용 동량사는 목적어의 성질이 관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sup>4)</sup> 예컨대 목적어가 일반 사물인 경우 동량보어 뒤에 위치하며, 특정한 사람이나 동물 및 지명인 경우 동량보어 앞뒤에 모두 위치할 수 있으며, 대명사인 경우에는 동량보어 앞에 놓인다. 즉 한정적, 특정적, 구정보의 성질을 가진 목적어일수록 동량보어 앞에 출현하는 경향이 강했다.<sup>5)</sup>

그럼 이와 같은 동량보어와 목적어의 어순변이 양상이 처음부터 존재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그 어순변이 과정은 어떠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중국어사에서는 개별 동량사의 생성과 발전 및 동량사 구문 자체의 어순에 대한 묘사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동량보어와 목적어의 어순변이 양상이 현대 중국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아가 어순변이의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본고는 양한 시기부터 원명 시기를 범위로 삼아 ‘遍’, ‘下’, ‘次’, ‘回’ 등 전용 동량사 위주로 목적어와 동량보어간의 어순변이 양상과 변천과정 그리고 변천요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예문은 인용을 제외하고 모두 中国哲学书电子化计划, 대만 중앙연구원 上古汉语标记语料库, 近代汉语语料库에서 추출하였다.

3) Charles N. Li · Sandra A. Thompson(1999), 盧福波(1996), 刘月华(1983) 등 참고

4) 차용 동량사도 어법화 정도가 높으면 전용 동량사와 마찬가지로 목적어 앞에 나타날 수 있다(소영 2014).

5) 이수진(2006)참조

## 2. 동량보어와 목적어의 어순변이 양상

### 1) 양한 시기

선진 시기는 동작행위의 횟수를 표현하기 위해 대부분 수사가 동사 앞에 나타난다. 이런 수사+동사 형식은 한대까지도 주류를 차지한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이미 한대에 동량사가 생겨나면서 수사와 함께 동사 뒤에서 동사+수사+동량사 형식으로 출현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唐钰明(1990)은 아래와 같이 한대에 전용 동량사 ‘遍’, ‘下’가 동사 뒤에 출현하는 예문을 제시하였다.

- (1) 太子击前诵恭王之言, 诵三遍而请习之。(《说苑·敬慎》)  
태자 기가 나아가 공왕의 말을 외우고, 세 번 낭송한 후 외울 것을 청했다.
- (2) 肾有久病者, 可以寅时面向南, 净神不乱思, 闭气不息七遍。(《黄帝内经·素问·刺法论》)  
비장에 오래된 병이 있으면 인시에 남쪽을 향해 정신을 맑게 가다듬고 숨을 막고 일곱 번 참으면 된다.
- (3) 用之生桑炭炙巾以熨寒痹所刺之处, 令热入至于病所寒, 复炙巾以熨之三十遍。(《灵枢经·寿夭刚柔》)  
뽕잎재로 태운 수건으로 찢린 곳을 찜질하고 열이 병으로 차가운 곳에 닿게 하고 재차 구운 수건으로 서른 번 문지른다.
- (4) 太傅汝南陈蕃仲举去光禄勋, 还到临颖巨陵亭, 从者击亭卒数下。(《风俗通义·穷通》)  
太傅인 汝南사람 자가 仲举인 陈蕃이 光禄勋에서 면직되어 临颖현 巨陵亭에 이르렀다. 따르는 자들이 일하는 자를 여러 대 내리쳤다.
- (5) 汝南张妙会杜士, 士家娶妇, 酒后相戏, 张妙缚杜士捶二十下, 又悬足指, 士遂致死。《太平御览卷846引风俗通佚文》  
汝南 张妙가 杜선비를 만나 그 집에서 부인을 취하고 술 마시고 희롱하니 张妙가 杜선비를 포박하여 이십대를 때리고 발가락을 뽑아 선비가 죽었다.
- (6) 敞辞曰:初敢言, 候击敞数十下, 肋痛不耐言。《居廷汉简》123·58)  
敞이 거절하며 말하길: 처음 감히 말하려다 수십차례 공격하여 아파서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동량사 ‘遍’은 주로 시작과 끝이 있는 동작에 쓰이며, 동량사 ‘下’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동작에 주로 쓰인다. 예문(4~6)을 보면 초기 ‘下’는 주로 처벌과 관련되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타나는 경우 예문(3)의 ‘之’와 예문(4)의 ‘亭卒’ 등과 같이 목적어의 한정과 비한정에 관계 없이 모두 동량사 앞에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张赫(2010)은 《史记》와 동한 불경에서 동량사가 출현하는 예문을 추출하였다.

- (7) 於是沛公乃夜引兵从他道还, 更旗帜, 黎明, 围宛城三匝。(《史记·高祖本纪》)  
이에 패공이 야밤에 병사들을 끌고 딴 길로 돌아가 깃발을 고치고 동이 틀 때 宛城을 세 겹으로 둘러쌌다.
- (8) 汉有善骑射者楼烦, 楚挑战三合, 楼烦辄射杀之。(《史记·项羽本纪》)  
한나라에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 楼烦족이 있었는데 초나라와 세 번 전쟁하여 楼烦족이 늘 그들을 쏘 죽였다.
- (9) 汉卒十余万人皆入睢水, 睢水为之不流。围汉王三匝。(《史记·项羽本纪》)  
한나라 병졸 10여 만명 모두 회수로 들어가니 회수가 막혀버렸다. 한왕을 세 겹으로 둘러쌌다.
- (10) 阳虎为乱于鲁, 鲁君令人闭城门而捕之, 得者有重赏, 失者有重罪。围三匝, 而阳虎将举剑而伯顾。(《淮南子·人间训》)  
阳虎가 노나라에서 소란을 피워 노왕이 성문을 닫고 잡아오게 하였다. 잡은 자에게는 큰상을 내리고 놓친 자에게는 큰벌을 주었다. 세 겹으로 두르고 양호가 검을 들 때 얼굴에 다가갔다.
- (11) 口中五色光出。离口七尺。分为两分。一光绕佛三匝。(《修行本起经·卷上》)  
입안에서 오색 빛이 흘러나왔다. 입에서 7척으로 양 갈래로 갈라져 부처를 세 겹으로 에워쌌다.
- (12) 诸比丘。受教头面礼足。绕佛三匝。(《中本起经·卷上》)  
비구니들이 가르침을 받고 얼굴을 발에 대고, 부처님을 세 겹으로 둘러쌌다.
- (13) 住空现变。出没七反。(《中本起经·卷上》)  
허공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일곱 번 반복했다.
- (14) 飞升虚空。出没七反。(《中本起经·卷上》)

공중에 날아올라 일곱 번 출몰하였다.

위의 예문에서 많이 출현하는 ‘匪’는 명량사로 보는 견해와 동량사로 보는 견해가 공존하는데 일종의 이중목적어 구문처럼 보이기도 한다.<sup>6)</sup> 예문(8)의 ‘슴’은 두 군대가 교전하는 횡수를 가리킨다. 역시 목적어와 동량보어가 함께 출현하는 예문(7)(8)(9)(11)(12)를 보면 목적어가 동량보어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양한시기 동량사 구문의 목적어는 한정·비한정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동사 뒤 동량성분 앞에 출현한다. 이는 양한시기 동작의 횡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전히 동사+수사 혹은 수사+동사의 표현방식이 성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동사 뒤의 수사가 일종의 술어 성분처럼 기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출현하더라도 동사와 함께 하나의 주어처럼 기능하고 수사+동량사는 일종의 술어처럼 기능하는 것이다.

## 2) 위진 남북조 시기

한대가 동량사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맹아 시기라면 위진 남북조는 동량사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한대와 마찬가지로 동작의 횡수를 표현하기 위해 수사+동사 형식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동량사가 출현하면서 ‘수사+동량사+동사’와 ‘동사+수사+동량사’ 형식이 두루 발전하기 시작했다.<sup>7)</sup>

그 중 《齊民要術》에는 동량사 ‘遍’이 70여개로 다량 출현한다. 이는 농작물의 재배, 가공과 관련하여 동작의 횡수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sup>8)</sup>

6) 唐钰明(1990)은 ‘匪’를 명량사로 보는 반면 张棘(2010)은 동량사로 보았는데 ‘匪’이 당 송대에도 여전히 상용된다는 이유때문이다.

7) 张棘(2010:184)참조

8) 《齊民要術》은 북위(北魏)의 고양(高陽·山東省) 태수(太守) 가사협(賈思勰)이 편찬한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농서(農書)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시 구어적 요소를 많이 반영하고 있어 중국어사 연구에 자주 이용된다.

- (15) 一入正月初, 未开阳气上, 即更盖所耕地一遍。(《齐民要术·杂说》)  
정월 초에 아직 양기가 올라오지 않았을 때 경작할 땅을 한번 뒤엎는다.
- (16) 先放火, 十日后, 曳陆轴十遍。(《齐民要术·水稻》)  
불을 먼저 놓고 십일 뒤에 돌태를 열 번 끈다.
- (17) 假如耕地三遍, 即三重著子。(《齐民要术·杂说》)  
땅을 세 번 갈면 세 겹으로 씨를 뿌린다.
- (18) 直深细锄地一遍, 劳令平, 六月连雨时, 穉生者亦寻满地, 省耕种之劳。  
(《齐民要术·种韭》)  
깊이 꼼꼼히 감을 한번 매고 고른 다음 6월 장마 때 벼가 야생으로 사방에  
떨어져 농경의 수고로움을 덜어준다.

위의 동량사 구문 역시 현대 중국어와 달리 동량보어 앞에 비한정 사물명사인 목적어 ‘所耕地’, ‘陆轴’, ‘地’가 나타난다. 또 다른 용례를 보면 ‘其米绝令精细。淘米可二十遍’과 같이 수사와 동량사 앞에 ‘可’라는 부사가 붙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는 밀접하고 동량 성분이 술어 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齐民要术》에는 동작의 횟수와 관련하여 ‘度’도 자주 사용된다.

- (19) 治牛疥方: 煮乌豆汁, 热洗五度, 即差耳。(《齐民要术·养牛、马、驴、骡》)  
소 진드기 치료법: 검은콩 즙을 끓여 다섯 번 씻으면 차도가 있다.
- (20) 柿熟时取之, 以灰汁澡再三度。(《齐民要术·食经·藏柿法》)  
홍시가 익었을 때 따서 잿물에 세 번 씻는다.
- (21) 七日间, 一日一度搅之; 七日以外, 十日一搅, 三十日止。(《齐民要术·黄衣、黄蒸及蘖》)  
칠일 동안 하루에 한번씩 저고 칠일이 지나면 십일에 한번 저고 삼십일이 되면 멈춘다.
- (22) 十日内, 每日数度以杷彻底搅之。(《齐民要术·作酱法》)  
십일 안에 매일 몇 번씩 자루로 휘젓는다.

《齐民要术》에는 예문(19~20)처럼 수사+동량사가 동사 뒤에 나타나는 경우와 예문(21~22)와 같이 수사+동량사가 동사 앞에 나타나는 경우를 함께

볼 수 있다. 수사+동량사가 동사 앞에 나타나는 경우는 ‘하루 한번’, ‘매일 몇 번’과 같이 횟수의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때 목적어는 ‘之’와 같이 한정성 목적어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동사 뒤에 수사+동량사가 출현하는 경우는 주로 구체적인 횟수를 나타낸다. 이때 목적어는 앞에 출현하거나 생략되어 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진 남북조 시기 《世說新語》에는 ‘遍’, ‘次’, ‘下’와 같은 전용 동량사는 찾아 볼 수 없다. 《三國志》에서도 ‘遍’, ‘次’의 용례는 찾을 수 없고 아래와 같이 ‘下’가 몇 차례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23) 謹追辭叩头五百下, 两手自搏。(《三國志·王楼贺韦华传》)  
 엄숙히 추도를 하면서 머리를 오백번 조아리고 두 손으로 두드린다.
- (24) 謹通进表, 叩头百下。(《三國志·韦曜传》)  
 엄숙히 표를 올리고 머리를 백번 조아린다.

위의 예문에서 ‘下’는 여전히 ‘叩’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동작행위에 사용되었다. 예문을 보면 동사 ‘叩’뒤에 비한정 목적어 ‘头’가 바로 나타난다. 위진 남북조 시기에도 현대 중국어와 달리 비한정 목적어는 여전히 동사 뒤에 동량사 앞에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3) 당송 시기

당오대에는 ‘场’, ‘巡’, ‘遭’, ‘顿’, ‘件’과 같은 새로운 동량사도 출현하였지만 ‘遍’, ‘下’, ‘回’, ‘度’, ‘拜’와 같은 동량사도 여전히 사용되었다.<sup>9)</sup> 아래는 《祖唐集》에 출현하는 ‘遍’, ‘下’의 예문이다.

- (25) 後到曹溪, 欲礼祖师之堂, 门扇忽然自开, 瞻礼三遍而出。(《祖唐集·陈田寺元寂》)

9) 李建平(2003)참조

- 조계에 이르러 조사당에 참배할 때 문이 갑자기 열려 세 번 예배하고 나왔다.
- (26) 師云：“在什摩處？”僧彈指兩三下。(《祖唐集·石鞏和尚》)  
선사가 “어디에 있었느냐?”하니 중이 손가락을 두세 번 뿔겼다.
- (27) 師敲鼎蓋三下，卻問：“子還聞摩？”(《祖唐集·歸宗和尚》)  
선사가 솥뚜껑을 세 번 두드리고 “들리는가”라고 물었다.
- (28) 師便脫鞋打地一下。僧云：“和尚打地作什摩？”(《祖唐集·南泉和尚》)  
선사가 신을 벗고 땅을 한번 치니 중이 “화상은 왜 땅을 치십니까?”라고 말했다.

예문(25)은 《祖唐集》에 출현하는 단 하나 ‘遍’의 용례로 목적어가 여전히 동량보어 앞에 출현한다. 예문(26~28)의 ‘下’역시 목적어가 전부 동량보어 앞에 나타난다.<sup>10)</sup> 현대 중국어에서 ‘下’는 동작의 정확한 횟수를 나타내는 것 외에 ‘좀, 한번’과 같이 어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이때 수사로는 ‘一’만 사용된다. 《祖唐集》에서 ‘一下’의 용례가 늘어나는 것을 보아 시도의 의미를 갖는 ‘一下’의 발전을 추측해볼 수 있다.

아래는 《敦煌變文集》에 출현하는 다양한 동량사의 예문이다.

- (29) 月光王時，一一樹下，施頭千遍，求其智慧。(《敦煌變文集·八相變》)  
月光王때 한 나무아래 머리를 천번 보시하며 지혜를 구했다.
- (30) 薩陁王子時，舍身數度，濟其餓虎。(《敦煌變文集·八相變》)  
薩陁王子때 자기 몸을 수 차례 희생하고 배고픈 호랑이를 구했다.
- (31) 乍可決命一回，不能虛生兩度。(《敦煌變文集·降魔變文》)  
차라리 결투를 한번 벌이지언정 헛되이 두 번 생을 살 순 없다.
- (32) 雖然不飽我一頓，且得噓飢。(《敦煌變文集·降魔變文》)  
비록 한 끼도 배부르지 않더라도 굶어야 한다.

《敦煌變文集》에서도 목적어는 한정과 비한정 여부에 상관없이 동사 뒤 동량보어 앞에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예문(29~31)을 보면 동사와 목적어가 동목이합사처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동량보어가 중간에 삽입될 수 없다.

10) 《祖唐集》에는 ‘彈指+수사+동량사’구문이 3개 더 존재하는데 모두 동량사가 목적어 뒤에 출현한다.



아래는 송대 《朱子語類》에 ‘遍’이 출현하는 예문이다.

- (33) 虽见得已是, 又须平心更著思一遍。(《朱子語類·论语十一》)  
 비록 이미 알더라도 평정심을 갖고 한번 더 생각해봐야한다.
- (34) 当时解诗时, 且读本文四五十遍, 已得六七分。(《朱子語類·诗一》)  
 당시 시경을 해석할 때 본문을 사오십 번 읽으면 육칠십프로 정도 이해하였다.
- (35) 有人云: “草草看过易传一遍, 後当详读。”(《朱子語類·易三》)  
 어떤 사람이 “주역은 대충 한번 보고 나중에 상세하게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 (36) 又曰: “既见东后, 必先有赞见了, 然後与他整齐这许多事一遍。”(《朱子語類·尚书一》)  
 또 “동후를 볼 때 먼저 선물을 준 다음 그와 많은 일을 한번 정리한다.”고 말했다.

《朱子語類》의 ‘遍’은 내용상 주로 독서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비한정 사물 목적어 ‘本文’, ‘易传’ 등은 동량보어 앞에 출현한다. 결론적으로 당송시기에도 동량보어와 목적어의 어순에는 전 시기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한정 목적어와 비한정 목적어는 모두 동량보어 앞에 나타난다.

## 5) 원명 시기

목적어와 동량보어의 어순은 원명 시기에 이르러서야 현대 중국어와 비슷해진다. 즉 대명사 혹은 유정물인 특정 대상의 경우 동량보어 앞에 출현하고 비한정 특성을 가진 일반사물의 경우 동량보어 뒤에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는 원대 《元曲选》, 《元刊雜劇三十種》에 출현하는 예문이다.

- (37) 主人宣命我兩次三回, 我不肯去。(《元刊雜劇三十種》)  
 주인이 나에게 두 세번이나 명령했지만 가고 싶지 않다.

- (38) 怎生看俺众兄弟之面, 饶过他这一次咱。(《元曲选》)  
어떻게 우리 형제가 보는 앞에서 그를 이번 한번 용서하십니까?
- (39) 國舅, 太后, 君王行兩三遍題名兒奏, 着咱家自等候。(《元刊雜劇三十種》)  
국구, 태후 국왕이 題名兒奏를 두세 번 행하고 저를 기다리게 했다.
- (40) 我一脚踏倒这厮, 我取一回笑。(《元曲选》)  
내가 이 놈을 밟아 넘어뜨려 웃음거리를 만들었다.

예문(37~38)에서 인칭대명사 ‘我’, ‘他’처럼 한정성 목적어는 동량보어 앞에 나타나고 예문(39~40)에서 비한정 목적어 ‘題名兒奏’, ‘笑’는 동량보어 뒤에 나타난다. 특히 ‘取笑’와 같은 동목이합사에서도 동량보어가 중간에 삽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水浒传》에는 ‘回, 遍, 场’과 같은 동량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 (41) 那蛇看了洪太尉一回, 望山下一溜。(《水浒传·第一回》)  
그 뱀이 洪太尉를 한번 보고는 산 아래로 내려갔다.
- (42) 汤隆慢慢地吃了一回酒。(《水浒传·第五十六回》)  
汤隆이 천천히 술을 한번 마셨다.
- (43) 林冲把前日高衙内的事告诉陆虞侯一遍。(《水浒传·第七回》)  
임충이 전날 관아에서의 일을 陆虞侯에게 한번 고했다.
- (44) 临动身也回了七八遍头, 自摇摇头。(《水浒传·第二十四回》)  
몸을 움직여 고개를 일곱 여덟번 돌리더니 스스로 휘청거렸다.
- (45) 我们赶上去问他讨, 也羞那厮一场。(《水浒传·第五回》)  
우리는 그에게 가서 따지고는 그 놈을 한차례 혼냈다.
- (46) 必变了事, 倒惹出一场不好。(《水浒传·第一百二十回》)  
필시 일이 잘못되어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위 예문들은 동일한 동량사를 사용하였지만 목적어가 서로 다른 어순을 갖는다. 그 중 (41)‘洪太尉’, (43)‘陆虞侯’, (45)‘那厮’와 같이 호칭은 한정성이 강한 목적어로 동량사 앞에 출현하고 (42)‘酒’, (44)‘头’, (46)‘不好’와 같이 일반사물 혹은 사건인 비한정 목적어는 동량사 뒤에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는 《金瓶梅》에서 동량사 ‘遍’, ‘遭’이 목적어가 함께 출현하는 모든

용례를 제시하였다.

- (47) 月娘众人又陪着大哭了一场, 告诉前事一遍。(《金瓶梅·第五十九回》)  
 월낭 하인들이 따라서 한차례 통곡하면서 전일에 대해 얘기했다.
- (48) 昔日有一妇人, 生产孩儿三遍, 俱不过两岁而亡。(《金瓶梅·第五十九回》)  
 예전에 어느 부인이 아이를 세 번 낳고 이년이 되지 않아 죽었다.
- (49) 于是诵念了百十遍解冤经咒。(《金瓶梅·第一百回》)  
 이에 解冤经과 解冤咒을 백번 읽었다.
- (50) 月娘见李瓶儿钟酒都不辞, 于是亲自递了一遍酒, 又令李娇儿众人各递酒一遍。(《金瓶梅·第十四回》)  
 월낭은 이병아가 모든 술을 사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친히 술을 한번 따르고 이교아 사람들에게도 한번씩 따라주었다.
- (51) 那个是不知道? 就纂我恁一遍舌头。(《金瓶梅·第二十五回》)  
 그걸 모른다고? 나처럼 이렇게 한번 혀를 모으는 거야.
- (52) “若是吃一遭酒, 不见了一把, 不嚷乱, 你家是王十万!”(《金瓶梅·第三十一回》)  
 “만약 술을 한번 마시고도 주먹질 하고 소란떨지 않는다면 너희 집은 돈이 있다.”
- (53) 妇人一连丢了两遭身子, 亦觉稍倦。(《金瓶梅·第五十一回》)  
 부인이 연거푸 정조를 잃고 피곤해졌다.
- (54) 他如同守寡一般, 好不气生气死, 为他也上了两三遭吊, 救下来了。(《金瓶梅·第六十八回》)  
 그는 과부같이 성질이 내고 그 때문에 두 세번이나 자살하려고 했지만 구해졌다.

위에서 예문(47~48)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한정 목적어는 동량보어 앞에 출현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예문(48)과 같은 경우 예전 일(前事)이라는 것이 한정성과 특정성이 가미되어있고 예문(48)은 아이(孩儿)라는 유생명사가 나타나 일반 무생명사와는 달리 유정성이 강하다. 이외에는 ‘丢身子’, ‘上吊’와 같이 긴밀하게 연결된 동목이합사라도 동량보어에 의해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명대 이후부터 동량보어의 어순이 현대 중국어와 비슷한 어순으로 고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3. 동량보어와 목적어 어순변이 요인

현대 중국어에서 동량보어와 목적어의 어순변이는 종종 시량보어와 목적어의 어순변이와 함께 논의된다. 이들은 모두 동작의 결과 개념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역사적 변천과정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이들은 어순에 있어서 선진시기에는 주로 동사 앞에 출현하지만 위진 남북조 시기를 전후로 동사 뒤로 이동하였다.<sup>11)</sup>

張伯江·方梅(1996)은 현대 중국어에서 동사+목적어+동량성분에서 목적어는 앞에 나타난 대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보가 아니며 동사+동량성분+목적어 구조에서 목적어는 처음 나타나는 확인 불가한 대상으로 정보량이 가장 크다고 보았다. 이때 일반 단순 명사는 신정보로 나타나고 대명사, 고유명사, 호칭은 구정보로 확인 가능성이 높다. 姚双云·儲澤祥(2003)역시 동사+동량/시량+목적어 구조에서 목적어는 확인불가(non-referential)하거나 특정적이지 않은 것(non-referring)들이며 총칭적으로 복합사의 목적어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동량사와 시량사 뒤의 명사는 일반적으로 단순 명사로 비한정적 형식으로 출현한다고 보았다.

이는 정보 흐름에 따른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陸丙甫(2008)는 중국어의 정보흐름 방향을 지시성 전치원리(Referential Precedence Tendency)로 설명하였다. 지시성이란 확인 가능성(identifiability)을 말하는 것으로 확인 가능성이 높은 성분은 확인가능성이 낮은 성분 앞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확인 가능성은 지칭하는 대상을 확정할 수 있는가 여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칭성과 한정성, 신구정보, 화제, 생명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 중에서 한정성은 가장 중요한 요

11) 동량사의 생성에 대해 唐钰明(1990)은 양한시기에 동사+수사의 형식이 동사+수사+동량사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반면 張棘(2010)은 위진 남북조 시기 수사+동량사+동사와 동사+수사+동량사의 형식에서 동사+수사+동량사 형식이 우세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고대 중국어 시량표현의 위치에 따른 유추로 보았다. 상고시기 시간사 역시 동사 앞과 뒤 모두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사 앞뒤에 나타나는 시량성분은 비실제와 실제라는 의미차이가 존재하지만 동량사는 위치에 따른 의미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소로 한정성의 강약은 곧 확인 가능성의 강약을 의미한다. 方梅(1993)은 확인가능성의 강약에 따라 명사 성분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1.대명사 > 2.고유명사 > 3.호칭 > 4.这/那(+양사)+명사 >  
5.종속성 한정어+명사 > 6.일반 단순명사 > 7.한정성+명사

중국어에서 한정성분과 비한정성분은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다. 그녀는 명사성 성분의 어휘형식에 착안하여 한정성은 위의 순서대로 강에서 점차 약해지고 비한정성은 약에서 점차 강해진다고 보았다. 그 중 1.2.3은 한정성분의 전형적 표현형식이고 6.7은 비한정성분의 전형적 표현형식이다. 그리고 대부분 중국어 문장은 이 원리를 따라 한정성 즉 확인 가능성이 강한 성분이 확인 가능성이 낮은 성분 앞에 출현한다고 보았다.

중국어사에서 동량보어와 목적어의 어순 역시 확인가능성이 높은 인칭대명사나 고유명사, 호칭 등은 동량사 앞에 오는 경향이 있고 확인가능성이 낮은 일반 단순명사는 동량사 뒤에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55) 你看我旧日夫妻之面, 饶恕了我这一遍。(《水浒传·第四十》)  
너는 내가 옛날 부부 앞에서 나를 한번 용서하는 것을 보았다.  
(56) 把自家的事, 从头备细告诉了宋江一遍。(《水浒传·第三十二回》)  
자신의 일을 처음부터 宋江에게 한번 자세하게 알렸다.  
(57) 林冲把前日高衙内的事告诉陆虞侯一遍。(《水浒传·第七回》)  
林冲이 전일 관아에서의 일을 陆虞侯에게 한번 고했다.  
(58) 当晚, 张顺身边藏了一把蓼叶尖刀, 饱吃了一顿酒食, 来到西湖岸边。(《水浒传·第一百十四回》)  
그날 밤, 张顺은 몸에 수료잎으로 장식된 칼을 숨기고, 술과 음식을 한 차례 배불리 먹고 서호 연안에 다가갔다.

위 예문을 보면 순서대로 각각 인칭대명사 ‘我’, 고유명사 ‘宋江’, 호칭 ‘陆虞侯’은 동량보어 앞에 출현한다. 반면 ‘酒食’와 같이 일반 단순명사는 동량사 뒤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어사에서 동량사 구문은 애초에 한정·

비한정 여부에 구분없이 모두 동사+목적어+동량사 구문에서 나타났다. 즉 동량성분이 일종의 술어성 성분으로 일종의 연동구조에서 해당되었고 이때 목적어는 주어와 함께 일종의 주제화가 이루어진다. 이때 동량성분은 문미 성분으로 문장의 자연 초점이자 신정보에 해당된다. 이는 중국어가 일반적으로 문미에 자연초점이 나타나며 비한정 성분이 미지의 성분으로 문장 끝에 출현하는 것과 부합된다. 그런데 왜 원명시기 이후 비한정 목적어만이 동량사 뒤로 이동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중국어사에서 연동구문이 하나의 단문으로 유계화되는 과정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 술어는 어법적인 면에서 하나의 量化된 성분을 요구한다. 이를 有界化(bounded)라고 하는데 유계화란 시간축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고대 중국어와 현대 중국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동사를 有界化하지 않으면 완전하고 독립적인 문장을 이루지 못한다. 때문에 현대 중국어는 중심동사를 중심으로 시간, 성질, 상태 등이 하나의 테두리를 만드는데 이들 성분으로는 결과보어, 상표지, 시간사, 동량사 등을 이용한다는 것이다.<sup>12)</sup>

石毓智(2001)는 이런 유계화 현상은 중국어의 동보구조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보았다. 즉 복합어의 증가로 인한 결과보어의 발달, 상표지 동사의 중첩 등은 동보구조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직접적인 결과이고, '把'구문의 발전과 수사 주어문, 피동식의 생성 등은 동보구조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며 또 고대 중국어에서는 장소사, 시간사, 동량사, 명량사 등은 모두 목적어 뒤에 위치했지만 동사와 보어가 융합하면서 이들 역시 어순의 변화를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동량성분 역시 V+O+R구조에서 V+R+O구조로 변화로 인한 발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왜 비한정 목적어에만 일어나고 한정 목적어는 그대로 V+O+R구조로 어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없다.

12) 현대 중국어에서는 일률적으로 동사를 중심으로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성분은 동사 뒤에 위치하고 동작에 수반되는 특성은 동사 앞에 나타난다.

이는 앞서 말한 화용적 제약에 따른 것으로 현대 중국어에서 동량보어와 목적어의 어순변이는 신정보나 구정보의 화용적 차이를 의미하며 이는 곧 자연 초점의 위치를 나타냄을 보았다. 비한정 목적어는 신정보이자 자연초점으로 문장 끝에 와야하는 반면 한정성 목적어는 구정보로 문장 끝의 자연초점 위치에 올 수 없다.

(59) 武松就厅前将打虎的本事说了一遍。(《水浒传·第二十三回》)

무송이 마루 앞에 나가 호랑이 잡는 기술에 대해 한번 얘기했다.

(60) 月娘见李瓶儿钟酒都不辞, 于是亲自递了一遍酒, 又令李娇儿众人各递酒一遍。(《金瓶梅·第十四回》)

월낭이 이병아가 모든 술을 계속 사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친히 술을 한번 따르고 이교아 하인들에게도 한번 따라주었다.

위의 예문(59)과 같이 비한정 성분 ‘打虎的本事’은 확인 가능성이 낮아 동량사 뒤로 이동하는 것이 맞지만 목적어 자체의 길이가 길고 따라서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将’을 이용해 초점을 앞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예문(60)을 보면 첫 번째 일반 단순명사 ‘酒’는 한정성이 낮아서 동량보어 뒤에 출현하지만 뒤에 출현하는 ‘酒’는 같은 성분임에도 동량보어 앞에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앞에 나타났던 단순명사는 신정보 또는 자연초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한정성분과 마찬가지로 동량보어 앞에 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량보어와 목적어의 어순변이가 생성된 이유는 중국어 통사 체계에서 복문이 단문으로 되는 유계화 현상과 화용적 제약이 함께 작용한 것이다.

#### 4. 결론

본고는 중국어사에서 동량보어와 목적어의 어순변이 양상에 대해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그 어순변이 양상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동량사는 양한 시기부터 생겨나 위진 남북조 시기부터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

데 이때 동량 성분은 목적어와 함께 나타날 때 여전히 술어성 성분으로 기능하며 목적어 뒤에 나타난다. 이런 경향은 당송 시기까지 이어지다가 원명 시기이후부터 비한정 목적어에 대해서는 현대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점차 동량보어 뒤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중국어사에서 보어체계가 정립되면서 단문의 유계화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었고 동량보어 역시 동작의 결과 성분으로 동사 바로 뒤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한정 목적어는 신정보이자 자연 초점으로 문장 끝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반면 한정성 목적어는 원래의 위치에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것은 확인가능성이 높은 성분이 확인가능성이 낮은 성분보다 앞에 위치하는 중국어의 정보흐름 원리에 부합된다. 중국어사에 나타나는 동량보어와 목적어의 어순변이는 중국어 통사체계의 변화와 화용적 제약의 영향을 받았다.



## 參考文獻

- 박정구(2011) 중국어 동사구의 변이적 구조고찰을 통한 언어변화론 연구, 중국  
68집
- 이수진(2006) 동량보어와 목적어의 어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 영(2014) 신체부위류 차용동량사 어법화정도에 대한 고찰, 중국언어연구 51  
집
- 方梅(1993) 宾语和动量词语的次序问题, 《中國語文》 第1期
- 李讷(1998) 句子中心动词及其宾语之后谓词性成分的变迁与量词语法化的动因, 《  
語言研究》 第1期
- 李興亞(1980) 賓語和數量補語的次序, 《語言研究》 第2期
- 李建平(2003) 唐五代动量词初探, 《泰山学院学报》 第4期
- 李爱民(2001) 金瓶梅词话专用动量词研究, 《山东教育学院学报》 第2期
- 刘世儒(1965) 《魏晋南北朝量词研究》 北京: 中华书局
- 刘月华(1983) 《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 盧福波(1996) 《對外漢語教學實用語法》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陆丙甫(2008) 语序类型学理论与汉语句法研究, 沈阳、冯胜利主编 《当代语言学  
理论和汉语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 曲建华(2011) 《水浒传》中常用动量词探析, 《语文学刊》 第5期
- 石毓智(2001) 《汉语语法化的历程》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 太田辰夫(1990) 《中国语历史文法》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 唐钰明(1990) 古汉语动量表示法探源, 《古汉语研究》 第1期
- 姚双云·儲澤祥(2003) 汉语动词后时量、动量、名量成分不同现情况考察, 《湖南  
师范大学》, 第2期
- 张伯江·方梅(1996) 《汉语功能语法研究》, 江西教育出版社
- 张赫(2010) 《汉语语序的历史发展》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Charles N. Li · Sandra A. Thompson(1999), 《표준중국어문법》, 박정구 외 4인  
譯

Abstract

A diachronic study on word order variation of object and action-measure complement in chinese

Park, Hyang-lan

The word order variation of object and action-measure complement is hot topic in chinese grammar.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word order evolution of action-measure complement from diachronic analysis. This paper holds that the issue on word order selection of object and action-measure complement is determined by the evolution of the syntactic construction of ancient chinese and different word orders are selected because of different pragmatic restrictions.

Key words : word order, object, action-measure complement, pragmatic restrictions

투 고 일 : 2016. 9. 10. / 심 사 일 : 2016. 9. 15. ~ 2016. 10. 15. / 게재확정일 : 2016. 10. 16.